

~主内平安~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톡 프로필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며 여름휴가를 보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름휴가를 잘 보내셨나요? 피지는 8월에도 비교적 시원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시내에 자주 나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 달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만남과 대화의 한 달’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엘림중국인 교회 이야기

-피지에서 일한다는 것

개척 리더가 교회 식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예배당을 증축하면서, 식당을 예배당 건물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은 중국인 공사 책임자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현지인 근로자들도 날씨가 좋지 않거나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일을 하러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지에서 이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피지인 선생님들도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며칠씩 휴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성도들도 현지인 직원을 고용하면서 꾸준히 일할 직원을 한 명 구할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이곳 피지의 문화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식사 모임

예배당 증축 공사로 교회 식당을 한 달 동

안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토요 모임을 성도들의 집에서 돌아가며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주는 A 형제 부부의 집에서, 둘째 주에는 저희 집에서 모였습니다.



중국 문화에서는 집에 손님을 많이 초대할 경우 보통 반찬을 최소 8가지 이상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메뉴를 고민하면서 반찬 12가지와 곰탕, 꽃빵을 준비했습니다. 어른 14명과 아이 3명이 함께했는데 음식이 부족하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임성운 선교사님의 인도로 감사 나눔과 기도제목을 간단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주에도 선교사님께서 리더의 집에서 모이자고 권유하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의견이 있어 함께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 느린 공사 속에서도 함께한 시간



공사 진도가 워낙 느린 데다가, 마침 선장으로 일하는 형제가 일을 마치고 휴가 중이어서 두 명이 예배당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정비하고 청소하며 함

게 땀을 흘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공사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 교회를 함께 돌아보고 섬기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 심방 이야기

주중에는 리더들을 심방하며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 만나면 3~4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의 과거 이야기와 현재의 걱정, 그리고 저희에 대한 불만까지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말에 속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오해를 조금씩 풀어 갈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감기에 걸린 가정도 많아 직접 찾아가 심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위챗으로 자주 연락하며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이 보내주는 감사의 답장을 받을 때마다 저희도 뭉클한 마음이 들고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 성도 친구의 교통사고 이야기



한 성도의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나가던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그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자매는 그 자리에서 넘어져 팔이 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이 모든 과정을 목격했음에도 별도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친 사람을 병원에 보내는 것으로 상황이 끝났습니다. 병원에서도 큰 이상이 없다며 환자의 요청에 따라 김스만해 주었습니다. 경찰에게 사고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자매는 개인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임성운 선교사님 그리고 리더들과 함께 이 자매가 쉬고 있는 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저희를 착하고 좋은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다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 자매가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법과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는 피지에서 더욱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2. 교회 밖에서의 만남

-우연히 만난 중국인

8월에는 처음으로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수바 공원 근처에 가 보았습니다. 시내에서 버스를 타면 약 15분 정도 걸리고, 걸어서 돌아오면 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날 갑자기 비가 내려 비를 피하고 있을 때 우연히 중국인 남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그날 처음 피지에 도착했으며,

건축 일을 하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전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숙소에서 함께 지내는 중국인들이 여럿 있고, 주변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피지에 있는 중국인들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 청년들과의 만남

이번 달에는 청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보드게임을 해 본 것이 좋았는지, 주중에 한 어머니가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게임 활동을 많이 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몇 년 전부터 청소년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에 다녔는데, 요즘에는 다시 엘림중국인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리더의 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출석하기를 싫어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하면서 보냅니다. 유일한 외출은 체육관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피지 생활을 좋아하지 않고 항상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친구들도 잘 만나지 않아 주변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와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주중에 심방하면서 이 청년에게 체육관에 같이 가도 되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거절하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전에도 몇 번 함께 배드민턴을 쳤지만, 이번에는 함께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저를 “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 vip과의 만남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체육관에서 저희가 전도 대상 VIP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던 중국인 가게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그 시간대에 그 체육관에 온 것이 그날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삶이 전하는 힘

저희가 낙심하고 힘이 없을 때 윤사랑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주님과 관계에 집중하고, 사랑과 원칙을 잃지 않으며, 항상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선교사님의 삶이 저희에게 늘 본이 됩니다. 이번에도 한국 선교팀의 담당 목사님께서 목회에 회의를 느끼던 힘들어하시던 시기에 선교를 오셨고, 선교를 통해 다시 힘을 얻어 한국으로 돌아가셨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힘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파도 속에 있을 때는 당황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의 서핑보드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발이 젖더라도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한 영혼에 집중하고, 그 영혼을 기도로 주님께 맡기며 섬기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기도제목

1. 교회의 기준과 제도가 잘 세워지도록

심방을 다니면서 리더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교회에 구체적인 기준과 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생긴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리더회의를 열어 교회의 여러 비용 책정과 사역 분담, 그리고 각 사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잘 준비하고, 적절한 날짜를 정하여 리더들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서로의 불만을 줄이고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유치부와 청소년부가 잘 세워지도록

현재 교회에는 1살, 2살, 3살, 4살, 9살 아이가 한 명씩 있습니다. 그중 두 명은 한국어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나이 차이가 크고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서 함께 어울려 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림 그리기와 같은 간단한 활동을 하는 주일학교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간이 부족하여 따로 주일학교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리더들은 아이들이 시끄러워 본 예배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보통 실라 사모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밖에서 놀아 주고 있습니다.

10월부터 날씨가 더워지면 밖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유치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이 마련되고, 아이들의 눈높이

에 맞는 찬양과 율동, 교재와 활동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 가끔씩 나오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한 명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소년들과 개인적으로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더 많은 청소년들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여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전도대상 VIP와 꾸준히 만나며 한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VIP의 중국 가게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드민턴을 치는 시간대도 같아서 앞으로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만나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고, 자연스럽게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를 기다리며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지와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귀한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곳에서 주님께서 맡겨 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기도로 함께해 주세요.

피지 수바에서
최에녹, 진실라, 이안 드림

후원 계좌: 부산은행 101 2035 6666 02
장산교회 선교부

부록사진

－ 치과 통역, 성도가 한국인 하는 치과에서 치료. 피지에서도 한국어 통역 사역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 성도들과 함께 선교사님 섬기는 피지 교회 심방

